

**전일동향**

전일대비 1.10원 상승한 1,473.60원에 마감

28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10원 상승한 1,473.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60원 상승한 1,474.10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뚜렷한 방향을 잡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 소폭 상승하며, 1,473.6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3.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3.18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4.10	1475.20	1471.60	1473.60	1473.30
엔화	924.13	926.66	922.22	923.18	-	
유로화	1727.02	1729.49	1722.70	1725.53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4	-3.11	-8.03
결제환율(수입)	-0.02	-2.14	-5.99	-12.0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유가부담과 위험선호 위축에...1,47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1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73.60) 대비 0.95원 하락한 1,471.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국제유가 상승세 재개와 리스크 오프 분위기로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 미-이란 협상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며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을 우선적으로 논의한 후 핵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국내 증시 하락이 예상되며, 이는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 금일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GBI 편입 자금과 월말 수출업체 네고물량의 유입은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69.50 ~ 1477.25 원</b>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843.4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95원 ↓
	■ 美 다우지수 : 49141.93, -25.86p(-0.0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49.2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70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